

학교 앞 문구점 40곳 환경개선 추진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사업' 성과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생활밀접형 개선사업' 참가모집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학교 앞 문구점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대상 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24일 "이 사업은 소상공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임에도 소비성향과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동네에서 사라지거나 하락세가 나타나는 업종에 대한 지원 정책인 '생활밀접형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문구점은 7월 19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전화600-1772)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국세청 통계 '100대 생활밀접업종' 중 감소업종을 대상으로 신탈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구점을 선정했다. 지난해는 이발소가 대상이었다.

지난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에서 부산에는 680여개의 소상공형 문구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파악한 문구점의 쇠락 원인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2011년부터 학습준비물을 학교가 일괄 구매하면서부터



다. 또 종합 생활용품점 문점과 편의점, 대형쇼핑몰 등 온라인구매가 활성화되면서 학교 앞 한 두 곳의 문구점이 추억의 장소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소상공인지원사업 대상으로 문구점을 선정해 간판, 외부전광판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는 인테리어로 바꾸고, 소비자 맞춤형 경영서비스 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자인은 공모를 통해 표준안을 선정, 일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상 문구점은 총 40개로 구·군별 2개 내외다. 교육청 등에 안내포스터 부착 등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운영자가 고령인 업체가 많아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학교 앞 문구점 함바까보가'라는 제목으로 제보도 받는다"고 말했다. /부산=최인탁 기자 remark@

광주광역시 '광패키징 기술지원센터' 개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개발 등 마케팅 지원 등 판로 개척 도와

광주광역시가 국가직접사업인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광패키징 기술지원센터'가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적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년5개월여 동안 센터를 운영해 광산업 광통신업체를 비롯 전자부품, 센서업체 등 90여개 패키징 관련 제조기업을 지원, 직접 매출 333억원의 성과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본 센터를 통해 ㈜피피아이는 100G/400G 광통신 모듈 핵심부품 개발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로부터 적기에 지원받아 지난해 기준 2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광역시청 전경.

지 광주시 5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230억원 민자 30억원 등 총 310억을 투입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직접사업이다.

투입된 시비로는 2016년말 광용합·전자부품·센서모듈 등과 관련된 제조 패키징 분야에서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광패키징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해 개소했다.

아울러, 광패키징기술지원센터는 기술상담, 자문지원은 물론 시제품생산, 장비지원,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함께 마케팅까지 전담지원해 매출로 이어지게 해주고 있다.

또한, 맞춤형 기업지원 전략으로 기존 생산 제품은 자동화 장비 지원을 통해

가격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신규 개발 제품은 설계에서부터 공정 개발, 고장 분석, 제품 측정까지 종합지원을 통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적기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중이다.

현재, 광통신 부품 업체를 주로 지원했지만, ㈜우리로의 양자암호통신용 모듈 개발, ㈜하이솔루션 및 ㈜오이솔루션의 실리콘 포토닉스 제품 개발, 5G 이동 통신용 제품 상용화에도 기술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어 초연결 광융합 분야 산업의 확대 지원에 따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광패키징기술지원센터는 시제품 생산 환경을 만들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시제품 생산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중이다"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부품기술인 광융합산업이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에 발맞춰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24일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도시아카데미 교육.

평택시 '2019 도시 아카데미 교육' 진행

도시공간계획 중요성 인식 제고

평택시는 24일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제2회 '2019년 도시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아카데미는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도시공간계획의 중요함을 인식하기 위함 마련됐다.

명지대학교박인석 교수의 '아파트사회와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첫번째 강의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아파트단지가 갖는 문제와 쟁점에 대한 분석 및 도시재생시대에서 아파트단지의 미래와 계

획에 대한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경대학교 홍운순 교수의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이야기'를 주제로 한 두번째 강의는 녹색문화도시 프라이부르크, 환경도시의 도시계획정책, 주요시설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건축적 환경, 교통, 녹지 등 도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

국회·정부·전문가 모여 경전선 전철화 방안 모색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합동 토론회 타당성 검증 기회... 전철화 추진 촉구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사업의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정부·전문가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선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9명이 주최하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경유지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진석 교통연구원 박사가 '호남권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화 실현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8명의 패널이 경전선 전철화를 놓고 열린 토론회를 벌인다.

광주송정에서 삼랑진까지 총 289km에 이르는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다. 경제 성장과 함께 수용 능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삼랑진에서 순천까지 복선 전철화가 이뤄지거나 진행 중에 있는 등 고속화 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광주송정~순천 구간은 개통 이후 한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게 되면서 안전성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고 가장 느린 철도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노선 신설과 전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으나, 정부 조치가 늦어지자 이번에 국회가 다시 나서게 된 것이다.

지난해 4월 30일 경유지 국회의원 24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경전선 영향권인 부산·경남·광주 및 전남 21명의 여·야의원과 2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8월과 11월에는 시·도의회 의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조기 전철화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

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부터 KD I에 맡겨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높은 B/C 0.85가 나왔지만 근소한 차이(0.011)로 AHP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차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다행히도 올해 1월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되던 이어 4월 기재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재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다시 한번 타당성 검증 기회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경전선 전철화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4월 27일 하루 한번 운행에 393분이 소요되는 목포~광주~순천~부산부전 간 경전선 느낌보 열차 체험에 나서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김영록 도지사가 직접 나서 도착역인 부전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함께 경전선 전철화 사업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까지의 운행 시간이 5시간 30분에서 2시간대로 줄게 되고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두 지역의 동반성장, 남해안권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봉채영 기자

익산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951개 질환 대상자에 부담금 지원

익산시보건소는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951개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 질환

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이다.

단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951개 질환), 만성신부전 요양비(투석 중인환자 중 신장장애 2급), 보장구 구입비(91개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94개 질환), 간병비(95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7개 질환)이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진단서, 장애인진단서 등이다.

질환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사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 익산=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짐 / 19:57

6월 25일(화)
음력 : 5월 23일

수도권 날씨
32 ~ 1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기온: 연천 16/31, 동두천 17/32, 가평 15/32, 파주 17/30, 서울 19/32, 양평 17/32, 인천 19/28, 수원 18/32, 용인 18/32, 평택 17/33, 백령도 17/2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